

만화경같은 대중문화의 뒤편을 엿본다

방송 영화 광고 등 대중문화의 이면 파헤친 책들 관심 끌여

남의 뒷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늘 흥미진진하다. 그것이 일의 뒷이야기건 사람의 뒷이야기건 간에 드러나는 말끔함의 이면에 있는 크고 작은 에피소드는 凡夫들의 귀를 즐겁게 한다. 그래서 신문에는 가십난이 재미있고 역사책도 正史보다 野史가 더 흥미를 끄는지도 모른다. 현대사회의 새로운 신화로 등장한 광고나 TV, 그리고 영화 등 영상매체에 관한 이야기기도 그렇다. 영상문화의 제작과정에 얽힌 뒷이야기들은 그것의 엄청난 영향력만큼이나 다양하고 고감도의 재미를 선사한다. 30초의 광고로 소비자를 자기편에 끌어들이기 위해, 1시간의 교양프로에 시청자의 눈과 귀를 꼼짝없이 붙잡아두기 위해 그들이 벌이는 치열한 두뇌싸움과 버려지는 측량할 수 없는 분량의 파지와 필름은 그 자체가 또다른 드라마이기도 하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미완) 「만리장성 씹어먹기」(ㄱ) 「신나게 살아도 해는 금방 서쪽이여」(서해문집) 「대통령도 팝니다」(두리) 「광고에 신들린 사나이」(세계일보) 「카피라이터는 카피를 먹고 삽니다」(이상 광고)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꾹」(우석) 「출동! 오늘의 현장」(실천문화사) 「어제 그 프로 봤어?」(친구) 「오늘밤 마이크가 그립다」(문학사상사) 「프로듀서? 프로도사!」(사민서각) 「PD는 마지막에 웃는다」(문학사상사) 「TV를 읽읍시다」(한울) 「요즈음 TV 볼 만합니까?」(이상 방송) 「캣! 다시합니다」(감초) 「스텐바이큐」(유림 - 이상 영화) 「한국가요사」(현암사) 「타향살이」 「노래를 찾는 사람들1」(새길) 「누렁송아지」(한울-이상 노래) 등이 바로 그 대중문화의 '뒤편'을 엿보이는 책들.

방송과 광고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들

광고나 방송매체에 관한 책은 크게 세가지의 내용으로 구분된다. 하나의 드라마나 광고가 있기까지 제작과정에서 빚어졌던 일을 중심으로 다룬 것, 카피라이터나 CF감독, AE, PD, 아나운서 등 인기직업인들의 일에 얽힌 이야기나 대중문화를 만드는 당사자로서 가지고 있는 대중문화론 등의 글이다. 이 두 종류가 풍부한 애깃거리로 광고와 소비자, TV와 시청자 사이를 친근하게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면, 나머지 하나는 독자들에게 소비나 수용의 주체로서 이를 가려보고 분석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길러주는 종류의 글이다. 앞에 것보

다는 다소 딱딱하나 대상이 대상이니만큼 그 역시 흥미롭다.

먼저, 「잠시 전하는 말씀」 「따라하지 마!」 「만리장성 씹어먹기」 등 미완출판사에서 내놓고 있는 '이야기로 보는 TV광고' 시리즈에는 우리나라 CF사상 최초의 드라마광고인 '신대우가족'의 제작 현장이나, 폭풍우 몰아치는 시드니 상공에서 '툼보이' 제작진과 헬기조종사가 벌이는 기상천외한 촬영작전, 여덟번의 퇴짜 끝에 OK를 받아냈던 E랜드 담당 AE, 통과되지 못한 카피문치를 놓고 울음을 삼켜가며 새 카피를 써야 했던 '위스퍼' 담당 카피라이터 등 최근 TV전과를 타고 있는 화제의 광고 한편이 탄생되어 나오기까지의 갖가지 에피소드를 실어 30초의 광고를 글로 읽는 또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카피라이터 33인의 글모음인 「신나게 살아도 해는 금방 서쪽이여」, 프랑스 광고회사 RSCG의 사장이 쓴 「광고에 신들린 사나이」, 세계최대의 광고회사 사치 앤드 사치사의 성공스토리를 그린 「임신한 남자」 등은 끊임없는 크리에이티브와 철저한 프로정신으로 광고계의 신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흥미만을 뒤쫓아가는 독자들의 잔걸음을 붙잡는 녹록찮은 광고책도 있다. 이승정(YMCA사회개발부 간사) 황휘(서울광고기획) 등이 쓴 「대통령도 팝니다」 등은 단순한 정보전달의 기능을 넘어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주요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떠오른 광고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끔 안목을 길러준다.

방송쪽의 책들은 종수도 풍부하고 내용도 더 다양한 편이다. 아나운서 이계진씨가 20여년간 방송활동을 하면서 주위모았던 '낙수' 들로 꾸민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꾹」이나, SBS-TV '자니운 쇼'의 이기진 PD의 「PD선생님 이번일은 제발...」 등이 방송제작과정에서 있었던 웃지 못할 실수나 시청자들이 화면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NG 등을 담은 것이라면, MBC-TV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주철환 PD의 「PD는 마지막에 웃는다」나, CBS-TV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의 윤병대 PD가 쓴 「프로듀서? 프로도사!」, 「겉표전」으로 유명해진 MBC보도국 이진숙 기자의 「오늘밤 마이크가 그립다」, 아나운서 이숙영씨의 「애첩기질 본처기질」(문학사상) 등은 방송일이 주는 보람과 비애를 솔직히 드러내 보이는 자전적 에세이모음.

방송프로듀서연합회가 엮은 「어제 그 프로



다양하게 출간돼 있는 대중문화의 이면에 관한 책들.

봤어?」와 실천문화사에서 나온 「출동! 오늘의 현장」은 시청자들의 기억속에 인상깊게 남아있는 프로그램들의 탄생에 얽힌 얘기와, 방송민주화 투쟁의 한 사례로 꼽히는 평화방송 사태를 해당 PD들이 증언한 글 등을 담고 있는데, 자율적인 제작환경 마련에 기울였던 방송인들의 고뇌의 일단을 엿보게 한다. 「광주는 말한다」(남선우)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윤병대) 「주부가요열창」(김명철) 「여성시대」(이학규) 「전원일기」(권이상) 「퀴즈 아카데미」(주철환) 「PBC 뉴스쇼」와 「출동! 오늘의 현장」(박종만, 이경일, 조상기 외) 제작자들이 밝혀놓은 이야기들이다. 한편, 「요즈음 TV 볼 만합니까?」와 「TV를 읽읍시다」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쓴 TV비평서로 꼼짝없이 TV에 장악된 현대인들에게 이에 종속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영화감독들의 고백록과 원로작곡가의 자서전

영화제작에 얽힌 이야기도 흥미로운 읽을거리. 그러나 영상매체의 대표적인 영화이지만 그 명성에 부응하는 읽을 만한 국내저술이 많지 않다는 것이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섭섭함. 그러나 「캣! 다시합니다」(감초)는 정지영, 장길수, 이장호, 박철수, 이미례, 신승수 등 한 국영화계에 내노라 하는 감독 9인의 고백론이어서 관심을 끈다. 스크린의 뒤에 숨겨져 있는 촬영야사, 방화 제작 여건의 실패, UIP문제를 보는 시각, 공윤의 가위질 유감, 배우들의 이야기, 감독이 쓰는 남의 영화 평 등이 쪼여 있다. 박철수씨는 문화부 장관을 수신인으로 하는 글에서 "영화를 상영하여 극장에서 거둔 문예

진흥기금이 왜 영화가 아닌 다른 분야의 진흥기금으로 쓰여야 하는지" 묻고 있으며, 이장호씨는 「공포의 외인구단」을 고비로 만드는 영화마다 실패, 당시의 참담했던 심정을 고백한다.

60년대말 패기만만하던 젊은 국문학도 조동일(현재 서울대교수)씨가 "유행가도 분석되고 평가돼야 한다"고 말해 당시만 해도 편견에 가득차 있던 분위기에 "웬 뜬금없는 소리냐"며 핀잔받았던 말이 30년이 지난 지금은 연구대상 반열에 올랐고 책으로도 여러종 묶였다. 그가운데 몇권의 책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가요사」와 같이 구한말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우리 대중가요의 변천사를 통사적으로 기술한 쉬우면서도 방대한 저술이 있는가 하면, 「타향살이」의 작곡가 손목인씨의 경우처럼 이젠 원로가 된 이들이 자서전 형식으로 가요사를 정리하기도 한다. 운동가요로 눈을 돌리면 좀 더 풍부하다. 김민기의 작품세계를 조명한 「김민기」(한울), 80년대를 대표하는 노래꾼 정태춘의 삶과 노래를 글과 악보로 꾸민 「누렁송아지」(ㄱ) 「정태춘」(ㄱ), 그리고 운동가요의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한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창단배경과 발자취, 그리고 창가에서부터 항일 투쟁가, 학생운동가, 노동현장의 노래 등의 변천사를 노래운동의 측면에서 기술한 「노래를 찾는 사람들1」 등은 책의 여행의 길목에서 무심히 훑어거리는 노래의 시원을 더듬어 보게 한다.

— 정혜옥 기자